



해외 양계 뉴스



일본

96%의 국민이 계란 선호

최근 일본에서 발표한 계란 선호도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의 96%의 국민이 계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는 그저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전혀 먹지 않는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외에 계란을 먹는 회수에 대해서는 거의 매일 먹는다는 응답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 2~3개정도 먹는다가 33%, 거르지 않고 매일 먹는다는 응답도 31%로 나타나 일본인들의 65%가 거의 매일 계란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란을 먹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하나 거부감을 느낀다(꺼림직하다)는 대답이 70%로 가장 많았으며, 계란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냄새가 3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미끌미끌한 느낌 때문이 20%, 맛이 17%, 건강에 나쁘다가 13%로 나타났다. 계란을 어떻게 먹는가라는 질문에 15%가 오물렛, 다음으로 밥에 비벼먹는다(11%), 난유(10%), 훈제란(10%), 오무라이스(10%) 등으로 나타났다.(鶏鳴新聞)

2010년 자급률 계란 96%, 닭고기 59%

일본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10년 후인 2010년도에는 닭고기의 경우 소비의 큰 증가요인이 없고 생산량은 줄어 자급율이 지난 1997년도 68%이던 것이 59%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계란의 경우 생산증가와 더불어 소비도 증가하여 1997년도 자급률이 96%이던 것이 여전히 96%를 유지해 갈 것으로 예상하였다. 참고로 소고기의 자급률은 29%, 돼지고기는 58% 쌀은 자급률이 96%, 콩은 3%, 야채는 80%, 과일은 44%가 될 것으로 조사되어 축산관련 생산품들은 모두 자급률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았다.(鶏鳴新聞)

이탈리아

양계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

이탈리아 국민들이 양계산물에 대해 크나큰 편견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계관련의 한 단체가 조사한 설문에 의하면 조사대상의 75% 응답자가 육계가 케이지에서 사육되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조사대상의 79%는 육계사료가 순수 사료원료로 제조된 것이 아니고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화학사료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편견을 보면 단지 색깔 때문에 닭고기가 돼지고기, 소고기 보다 영양면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콜레스테롤함유로 인해 계란을 기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59%로 과거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은 다행스런 일로 받아들였다.(PI)

미국

저온 살균처리된 계란 판매 열기

최근 미국에서는 저온살균처리된 계란을 미농무성(USDA)의 승인을 얻어 판매망을 넓혀 가는 농가들이 늘고 있다. 캐롤라이나 지역의 DAVIDSON농장의 경우 지난 2월부터 미농무성이 인정한 저온살균계란의 상표를 획득하면서 수퍼마켓, 병원, 음식점, 호텔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안전성 식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그 호홍도는 날로 높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카나다 75개 지역에 30만개의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인 식품회사인 SYSCO사도 저온살균처리 계란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고유의 브랜드를 제작, 곧 상품화에 나설 것을 시사하였다.(EI)

아시아 등 수출 호조로 금년 닭고기 생산량 5% 증가 예상

미국의 올해 닭고기 생산량은 총 14,042,000톤으로 전년대비 5.1%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중 17~18%의 물량은 수출로 인한 증가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생산량 증가는 수출시장의 안정적인 확대와 러시아의 수출이 감소되고 있는 반면 중남미와 아시아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1997년 전체 수출량의 40%에 달하는 80~90만톤을 차지하고 있던 러시아 수출은 지난 해에는 20만톤으로까지 감소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닭고기 소비량이 늘면서 미국의 소비량도 29kg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MJ)

인도

파이생산으로 인한 경제위기

전 세계적으로 양계산물 파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의 경우 그 피해가 심해 양계산업 침체현상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을 보면 지난해 보다 육계의 경우 10%, 산란계의 경우 5%가 파이생산 되고 있지 만 실제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육계의 경우 25%, 산란계의 경우 10%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어려움은 원자재 가격의 계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생산비가 증가하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인도의 1인당 계란소비량은 35개, 닭고기 소비량은 1kg에 그쳐 소비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PI)